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CATI & ARS

제88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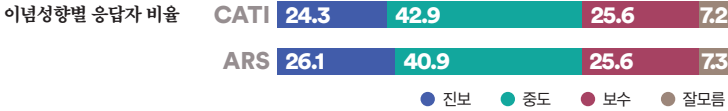
제103차 ARS조사

# 여론조사꽃

## 정례여론조사

### 보고서

## CATI & ARS



###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전체			1003		100.0	1003	100.0	1.00					
성별	남성		511	50.9	496	49.5	0.97						
	여성		492	49.1	507	50.5	1.03						
연령	18-29세		161	16.1	157	15.7	0.97						
	30대		151	15.1	149	14.9	0.98						
	40대		175	17.4	177	17.6	1.01						
	50대		197	19.6	197	19.6	1.00						
	60대		174	17.3	175	17.4	1.00						
	70세 이상		145	14.5	148	14.8	1.02						
지역	서울		189	18.8	187	18.6	0.98						
	인천·경기		320	31.9	322	32.1	1.00						
	대전·세종·충청		109	10.9	108	10.8	0.99						
	광주·전라		94	9.4	98	9.8	1.04						
	대구·경북		99	9.9	97	9.7	0.97						
	부산·울산·경남		152	15.2	149	14.9	0.98						
	강원·제주		40	4.0	42	4.2	1.05						

50.9%  
남성

49.1%  
여성

18.8%

31.9%

10.9%

9.9%

9.4%

15.2%

4.0%

### ARS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02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2	100.0	1002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16	51.5	495	49.4	0.95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여성	486	48.5	507	50.6	1.04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09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18~29세	114	11.4	157	15.7	1.37					
응답률	2.2% [총 통화시도 44,806명]			30대	143	14.3	149	14.9	1.04					
조사기간	2024년 10월 25일 ~ 10월 26일(2일간)			40대	191	19.1	177	17.7	0.92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14	21.4	197	19.7	0.92					
				60대	189	18.9	174	17.4	0.92					
				70세 이상	151	15.1	148	14.8	0.98					
			지역	서울	181	18.1	187	18.7	1.03					
				인천·경기	330	32.9	322	32.1	0.97					
				대전·세종·충청	105	10.5	107	10.7	1.01					
				광주·전라	100	10.0	98	9.8	0.98					
				대구·경북	99	9.9	97	9.7	0.97					
				부산·울산·경남	147	14.7	149	14.9	1.01					
				강원·제주	40	4.0	42	4.2	1.05					



51.5% 남성

48.5% 여성



18.1%

32.9%

10.5%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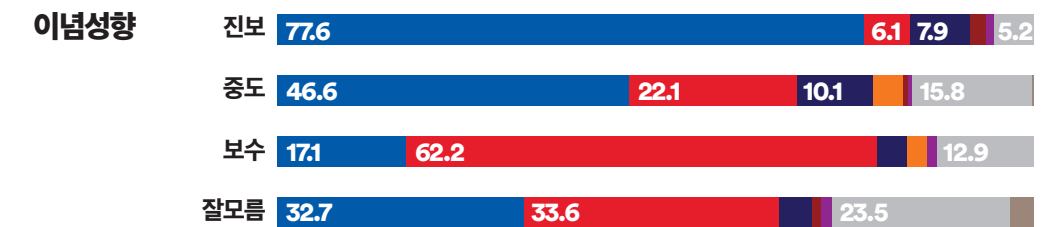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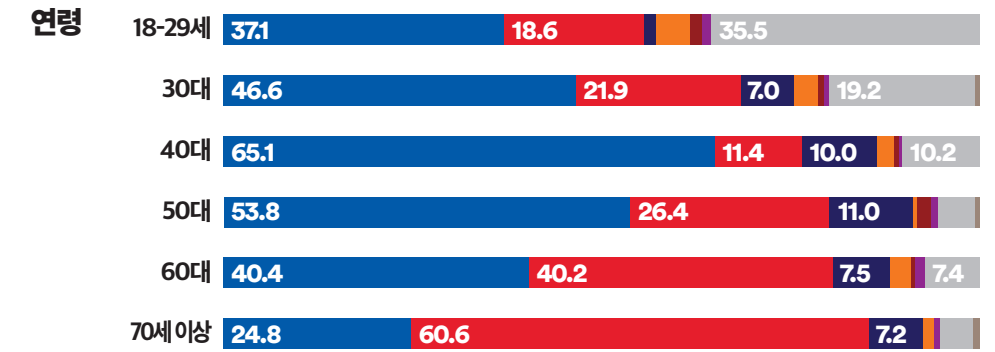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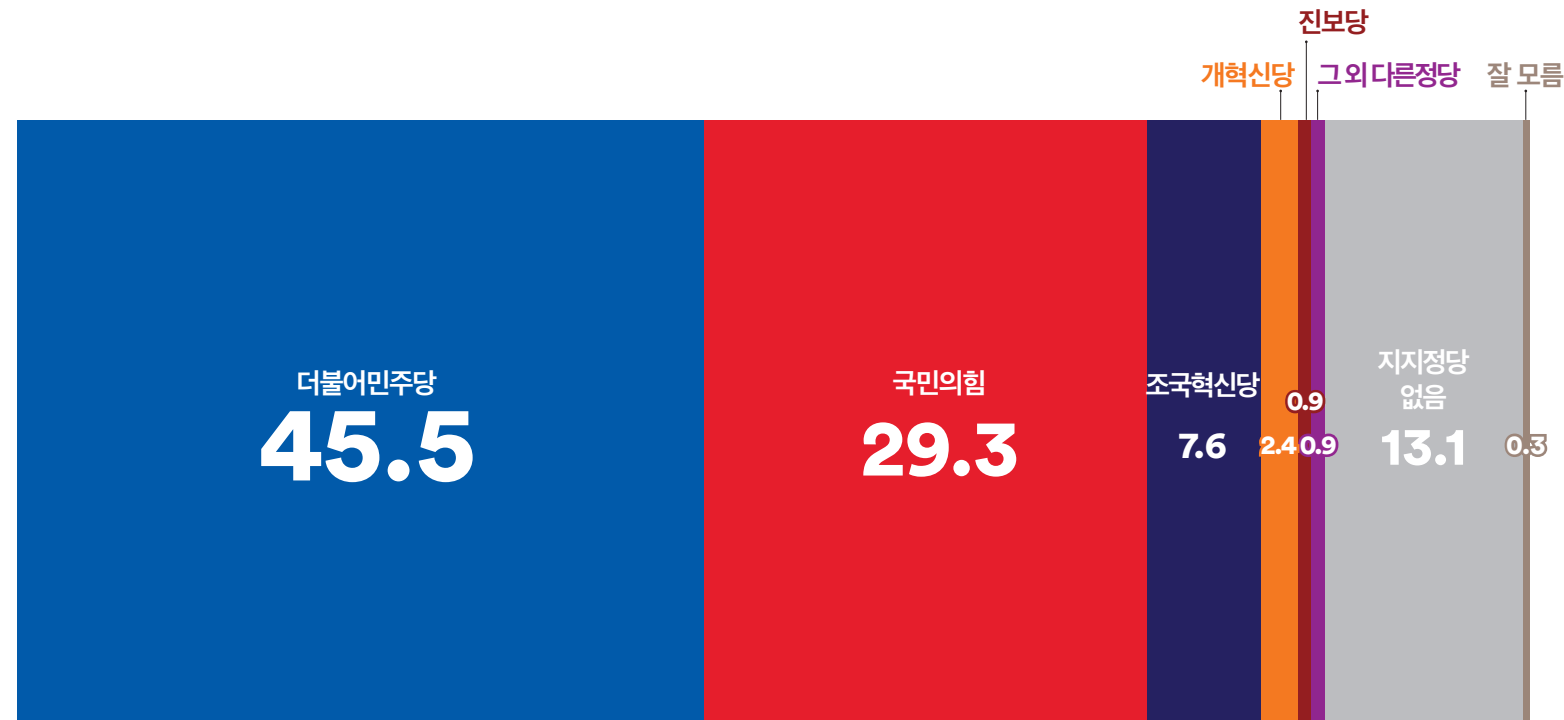
10.0%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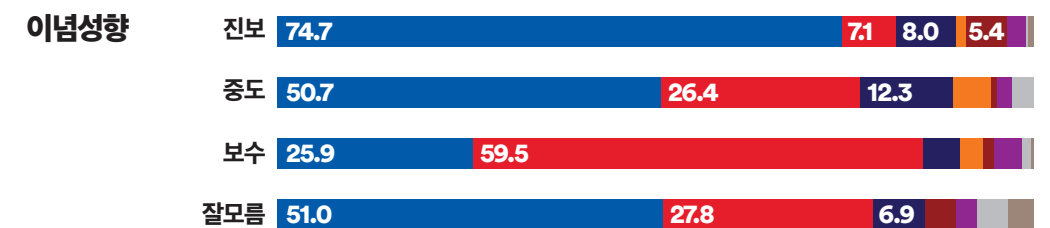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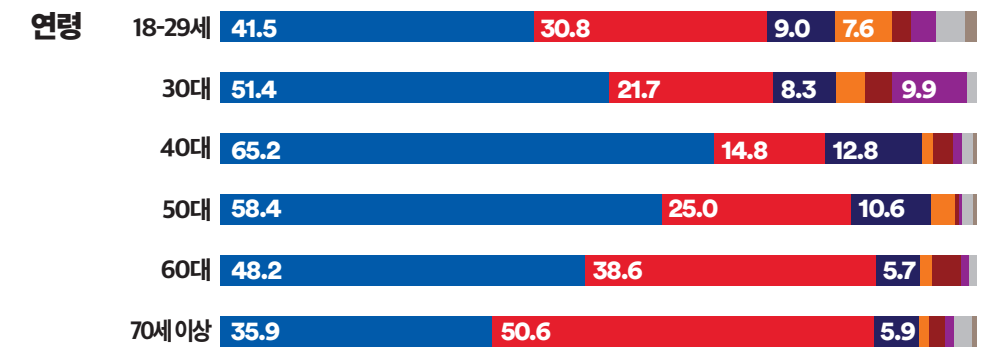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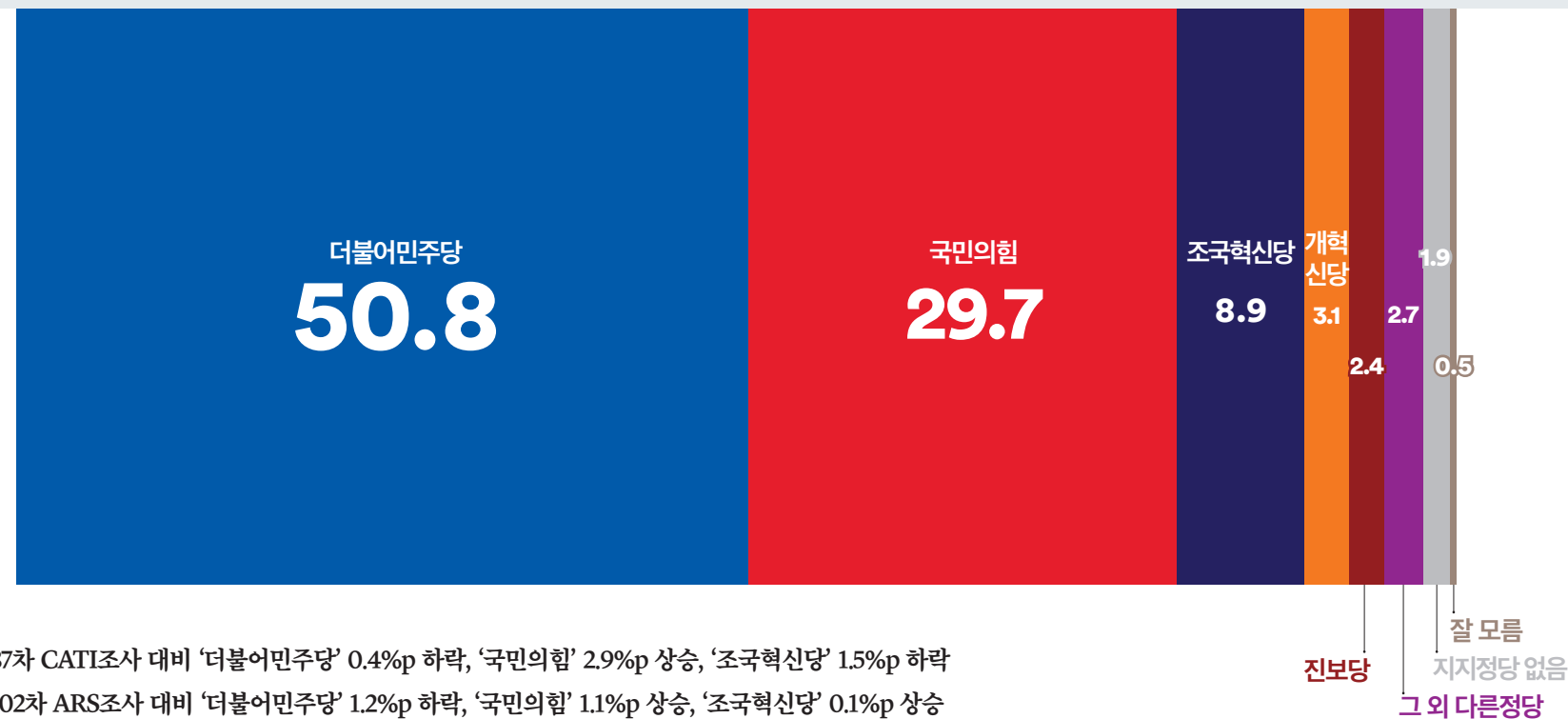
4.0%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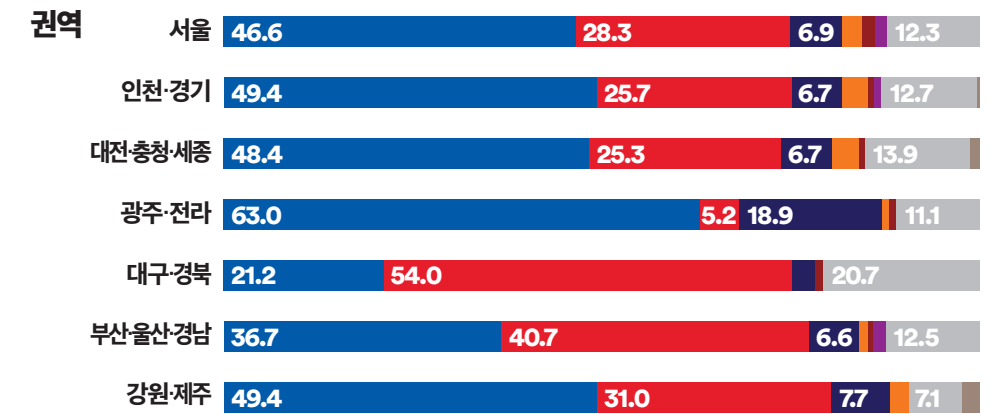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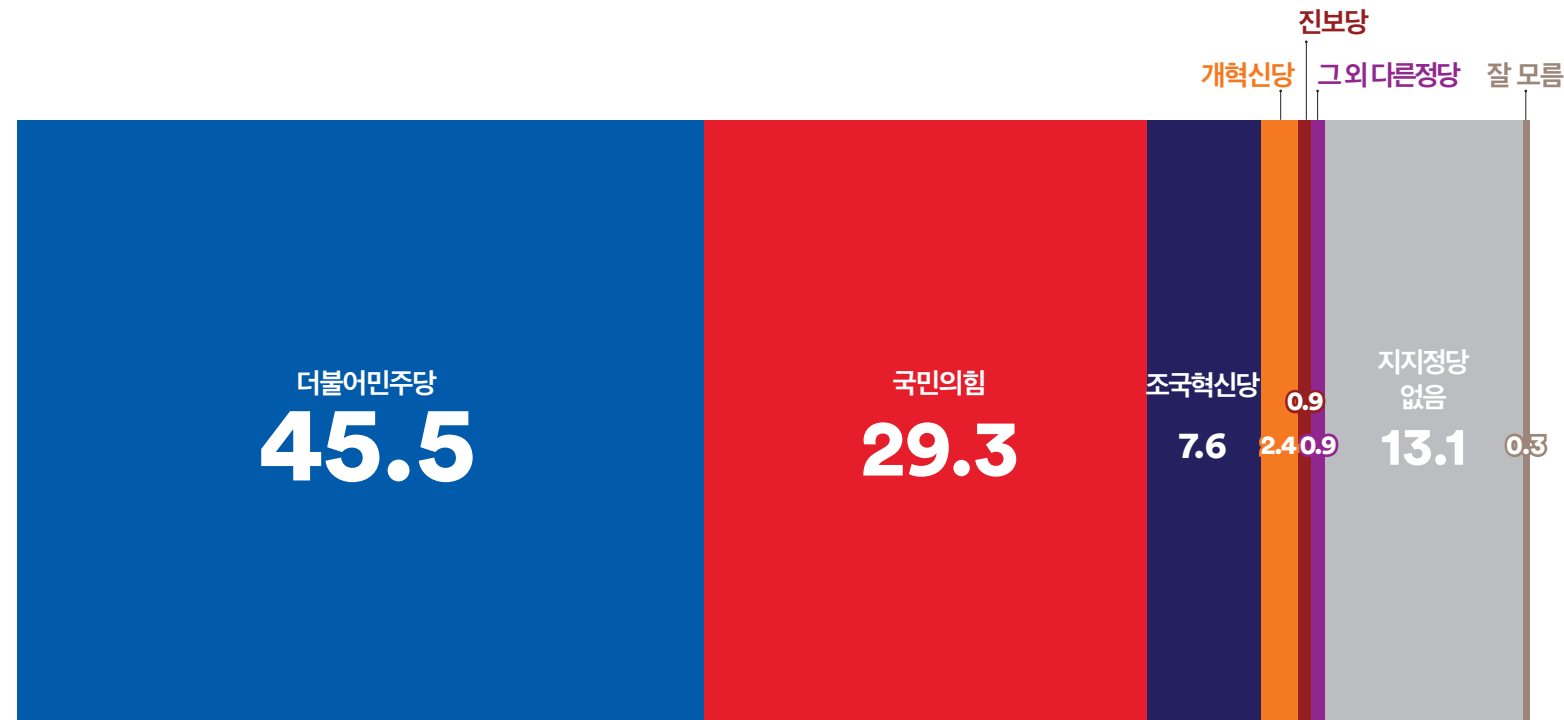


87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4%p 하락, '국민의힘' 2.9%p 상승, '조국혁신당' 1.5%p 하락  
 102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2%p 하락, '국민의힘' 1.1%p 상승, '조국혁신당' 0.1%p 상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16.2%p, ARS 21.1%p(지난 조사: CATI 19.5%p, ARS 23.4%p)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23.8%p, ARS 30.0%p(지난 조사: CATI 28.6%p, ARS 32.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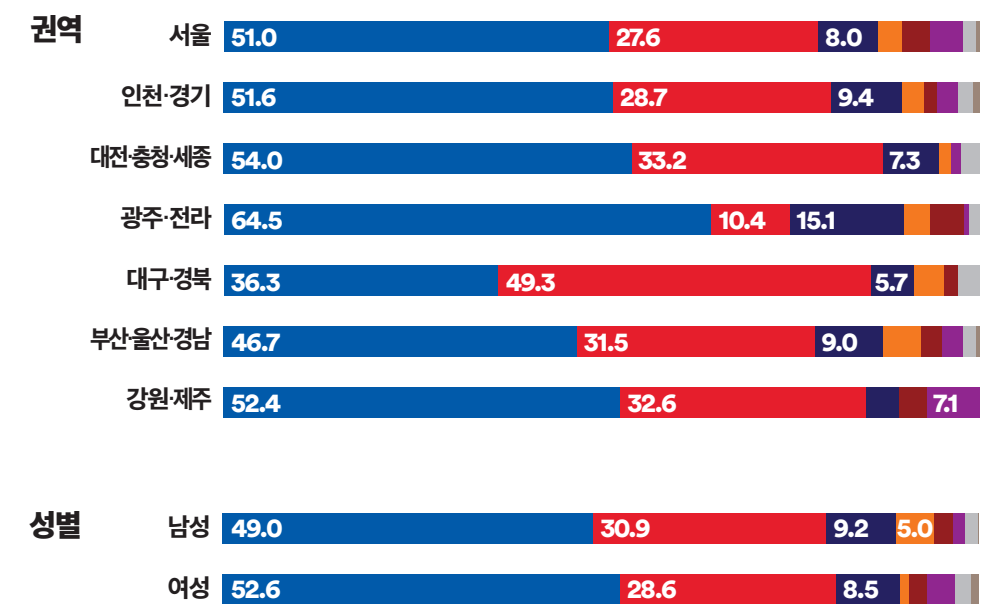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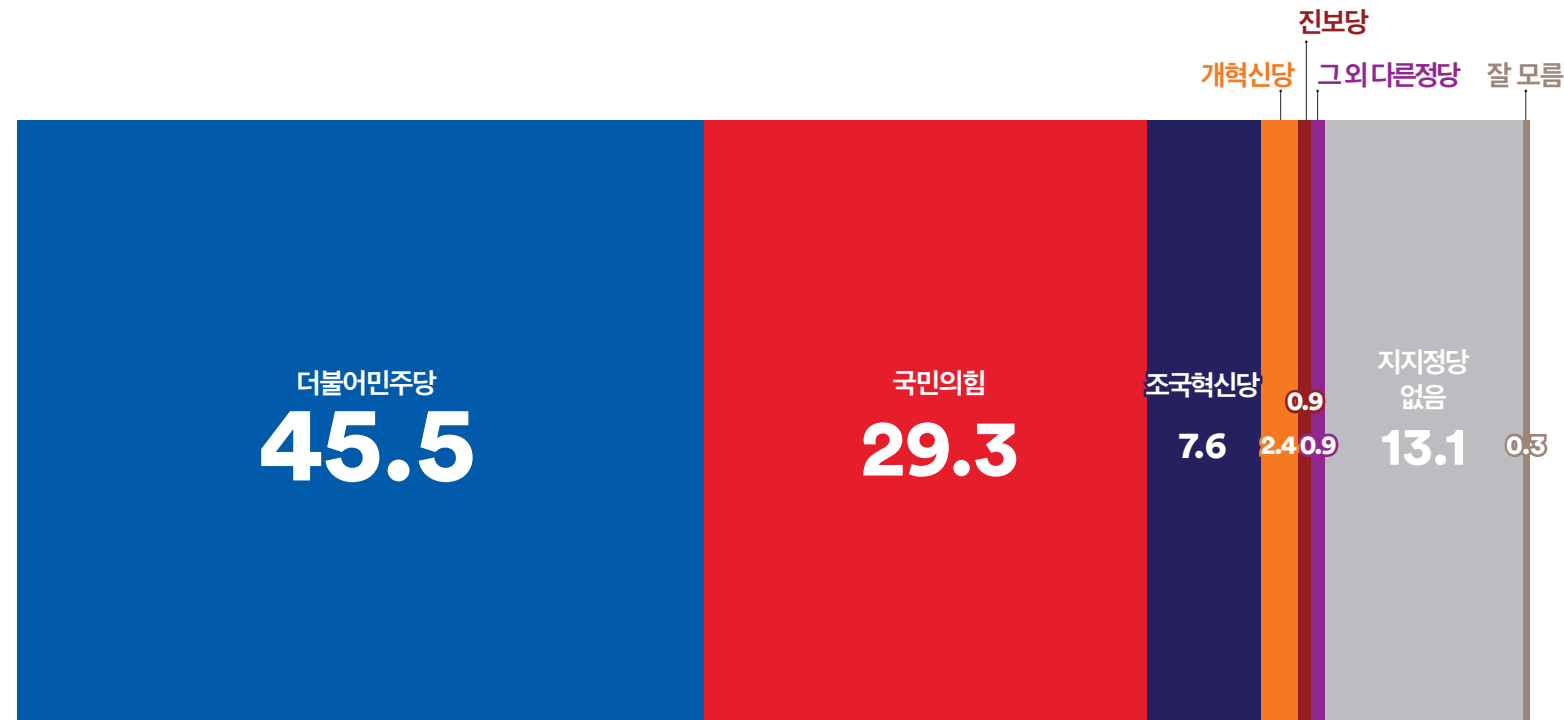


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대비 우세  
 CATI조사에서는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 앞섬  
 ARS조사에서는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서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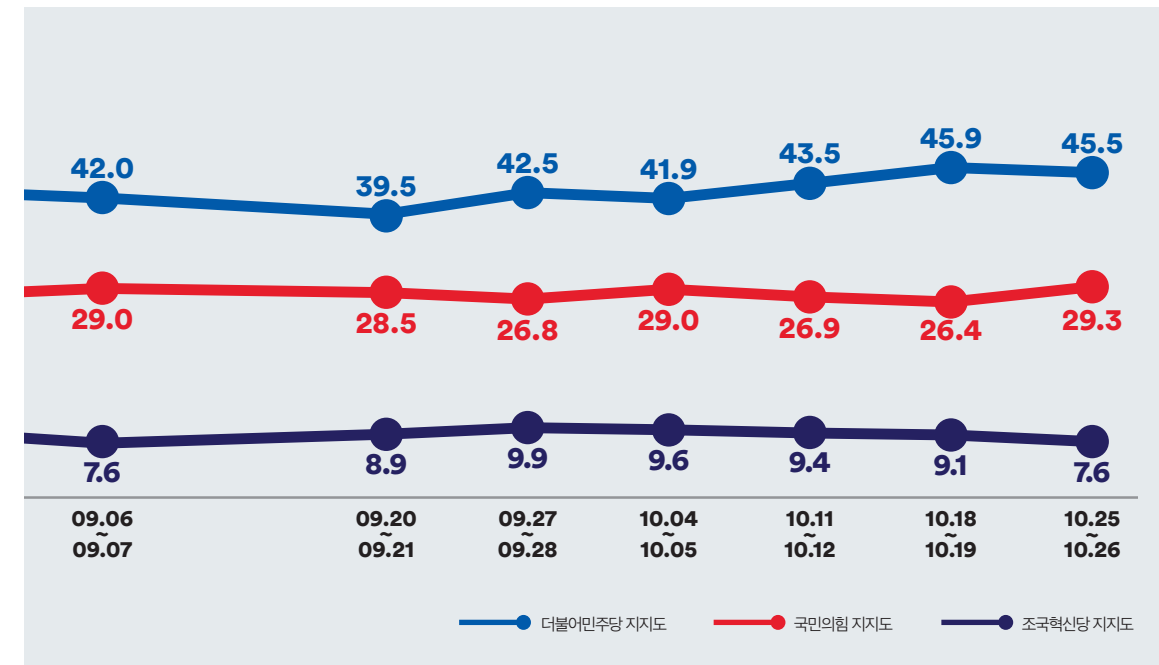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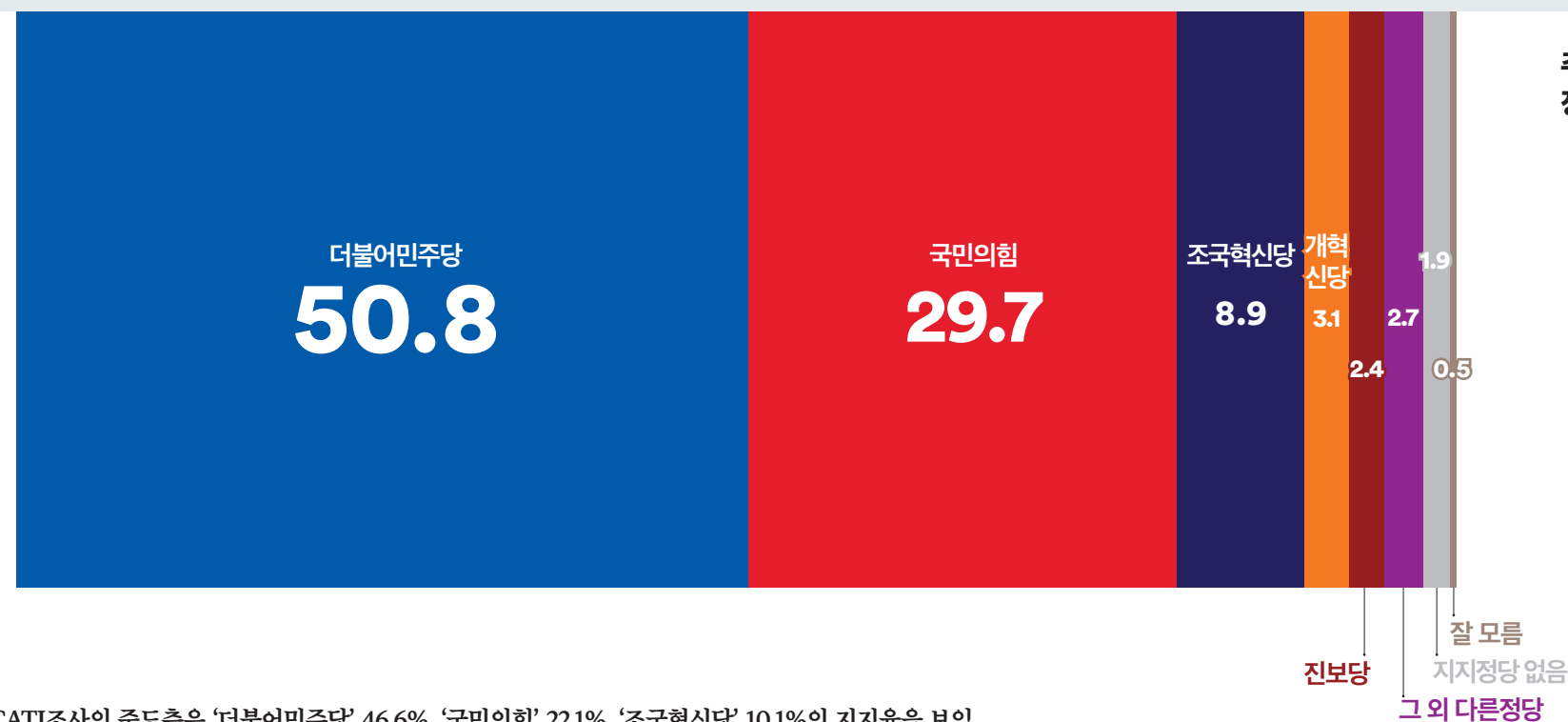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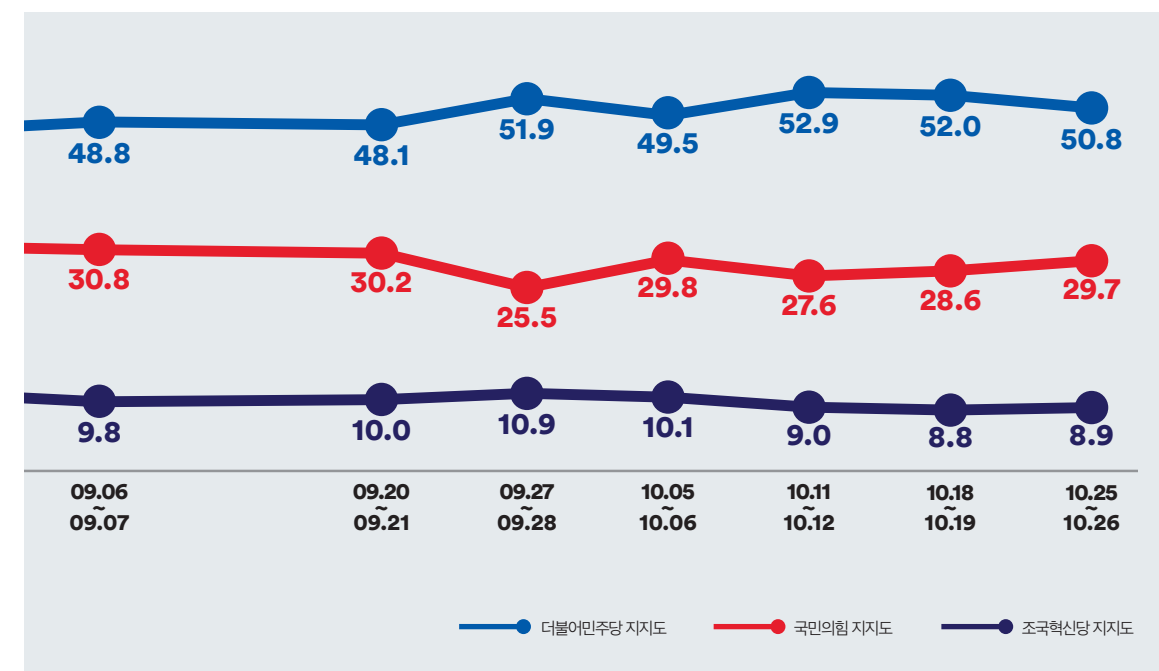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주차별  
정당지지도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6.6%,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10.1%의 지지율을 보임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50.7%, '국민의힘' 26.4%, '조국혁신당' 12.3%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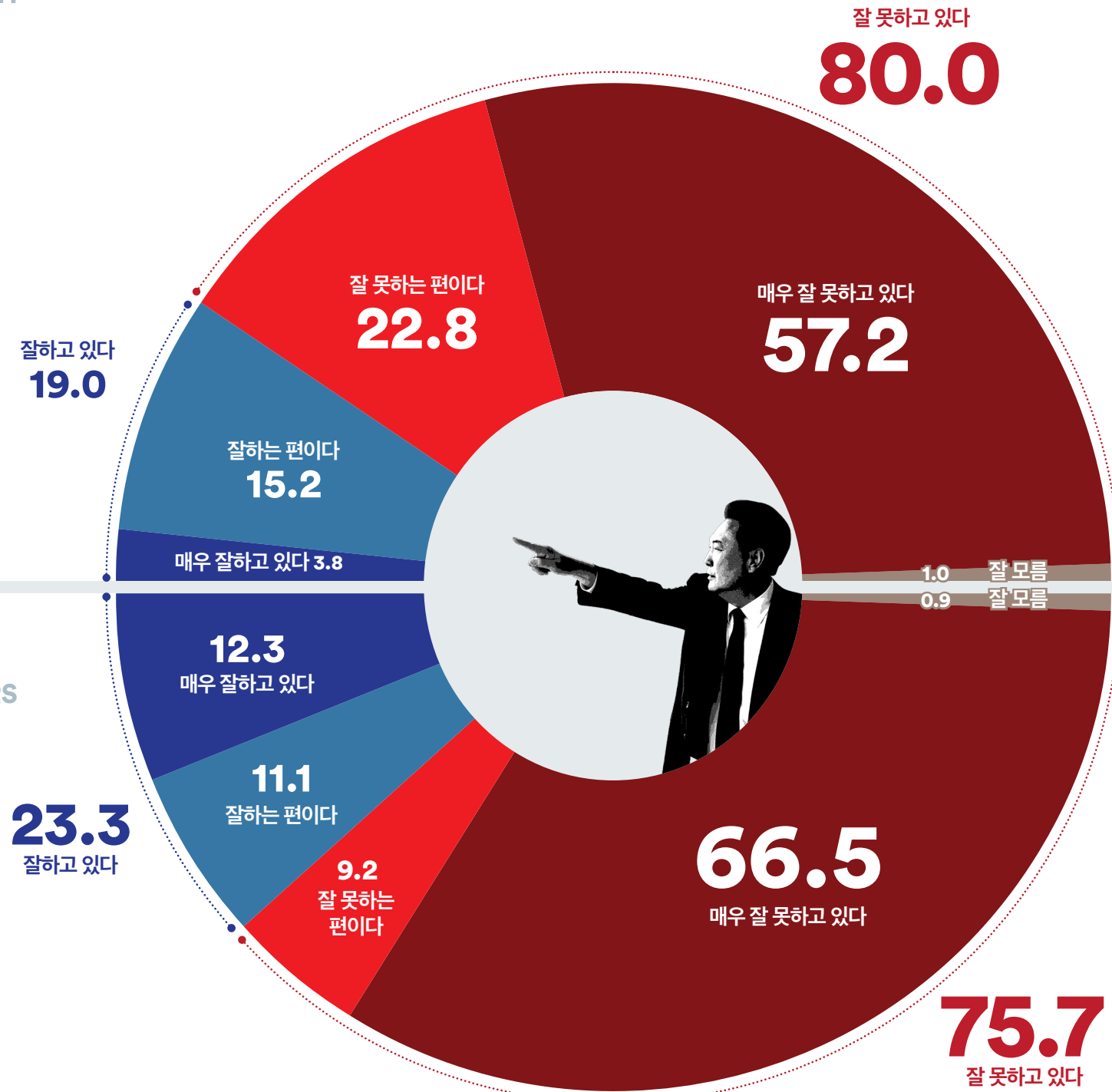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4.6%p(87차: 35.5%p), ARS 36.6%p(102차: 37.5%p)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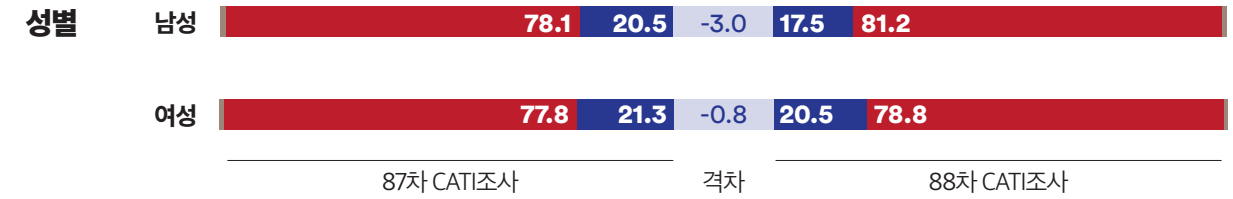


87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1.9%p 하락, '부정' 평가 2.0%p 상승(격차 61.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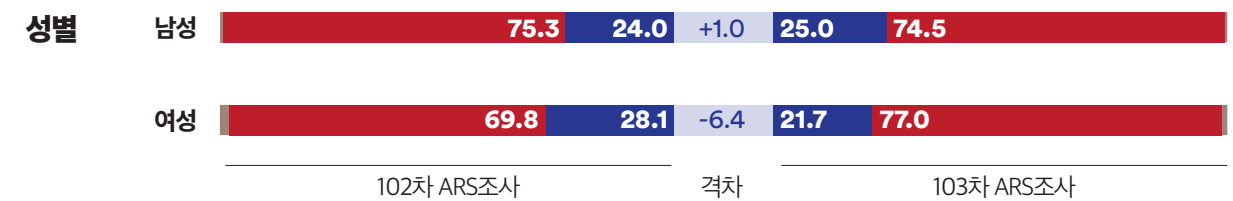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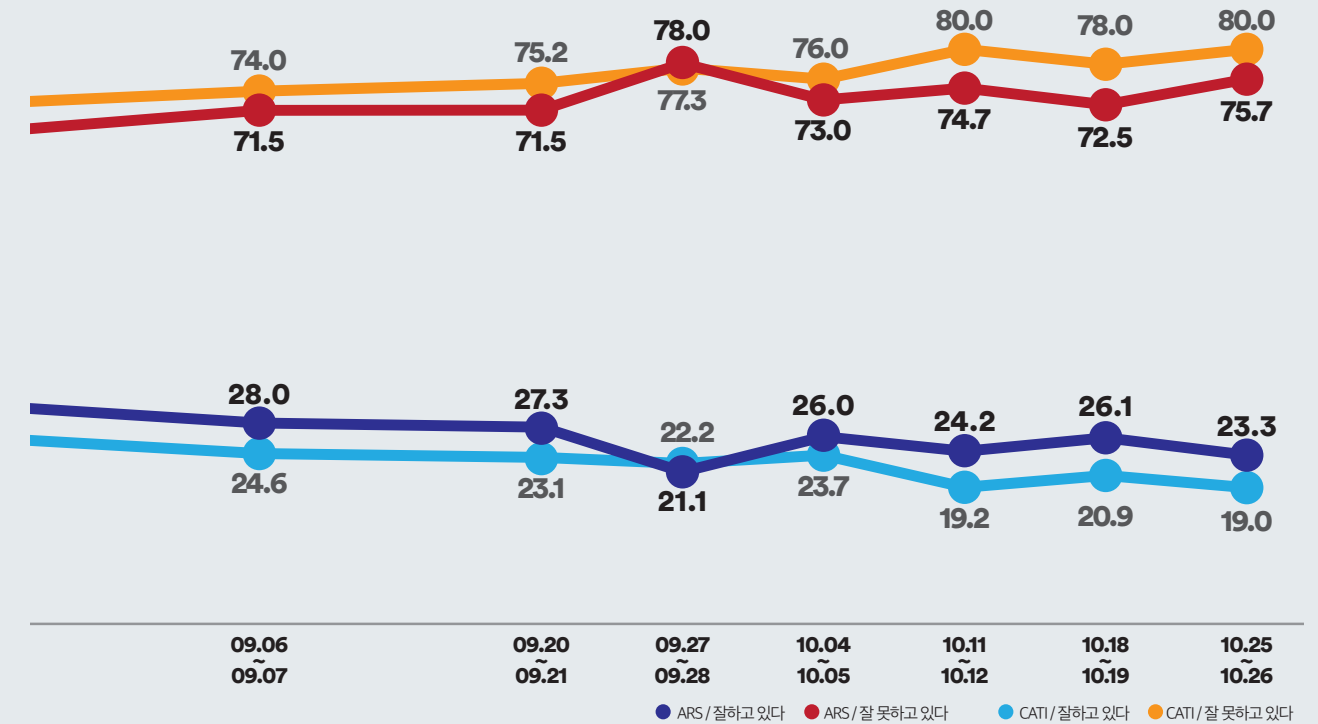
102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2.8%p 하락, '부정' 평가 3.2%p 상승(격차 52.4%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우세

두 조사의 중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하고, 평가 간 격차는 CATI 71.7%p(지난 조사: 71.5%p), ARS 61.7%p(지난 조사: 52.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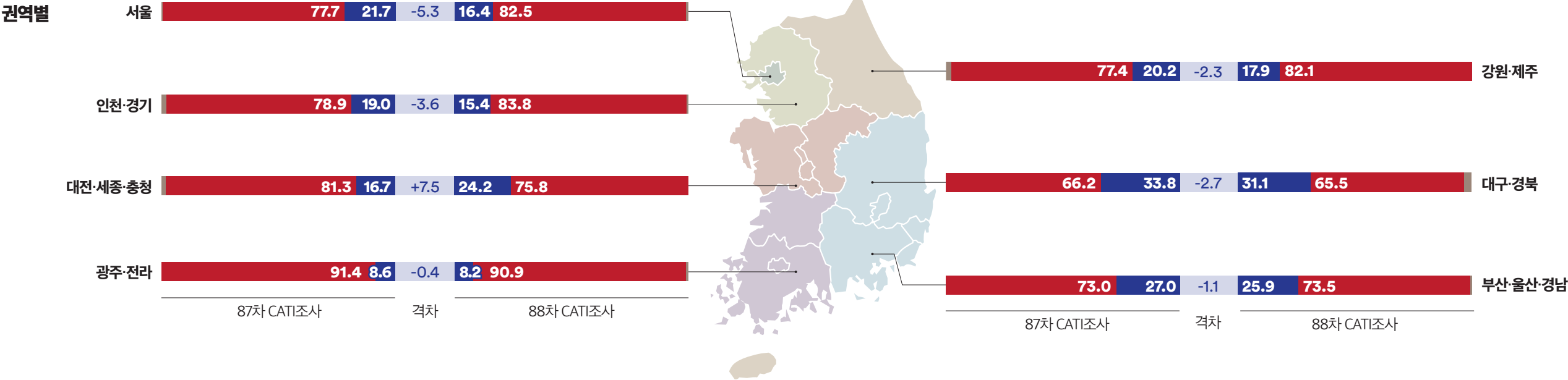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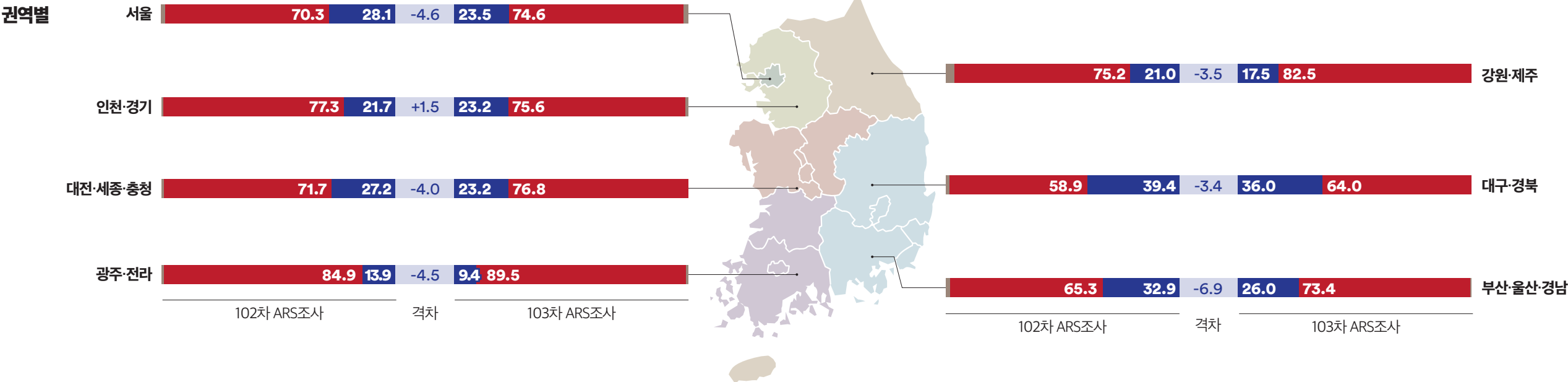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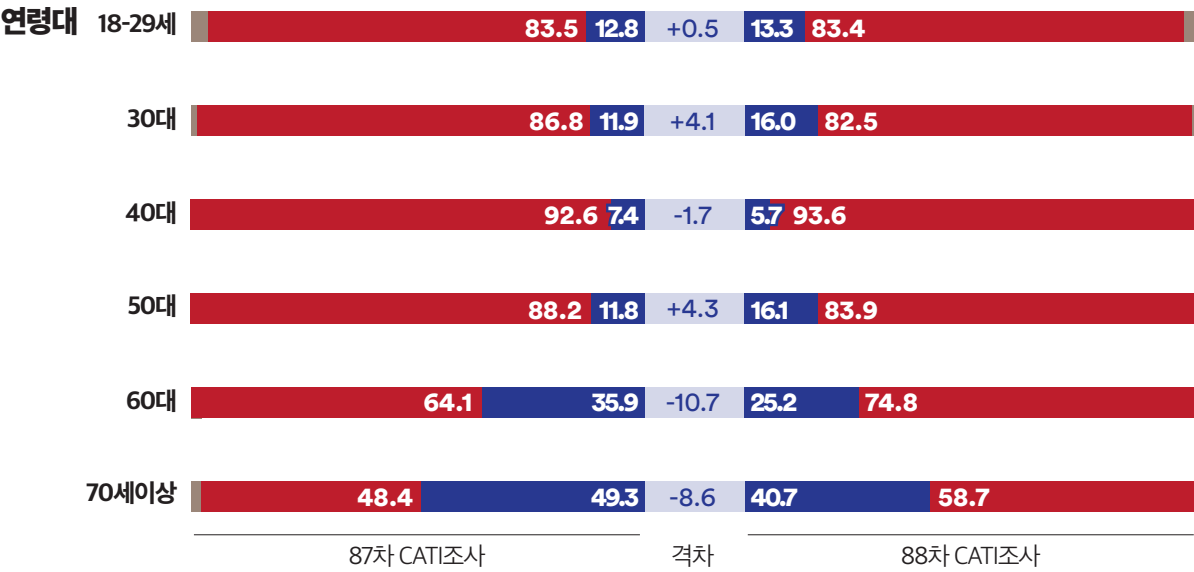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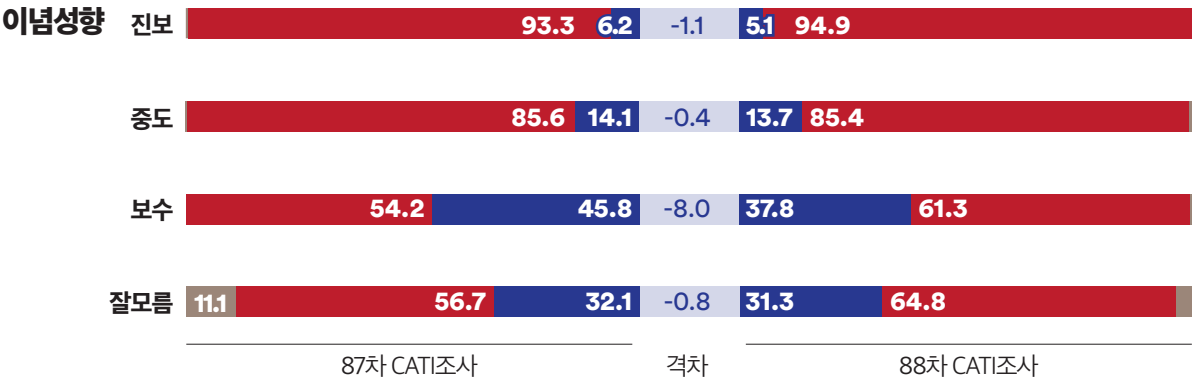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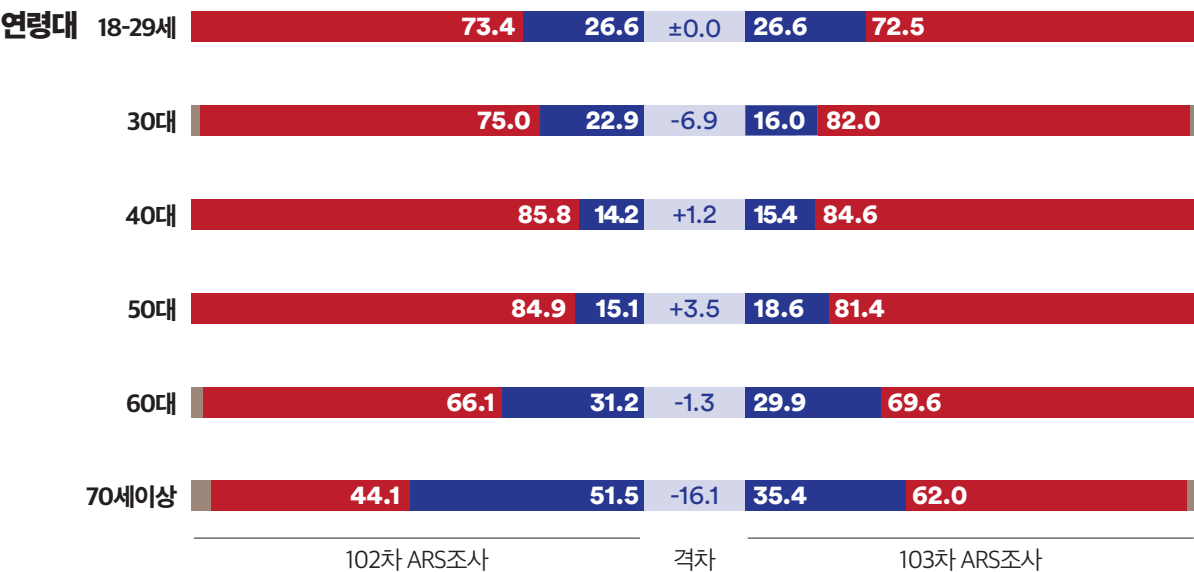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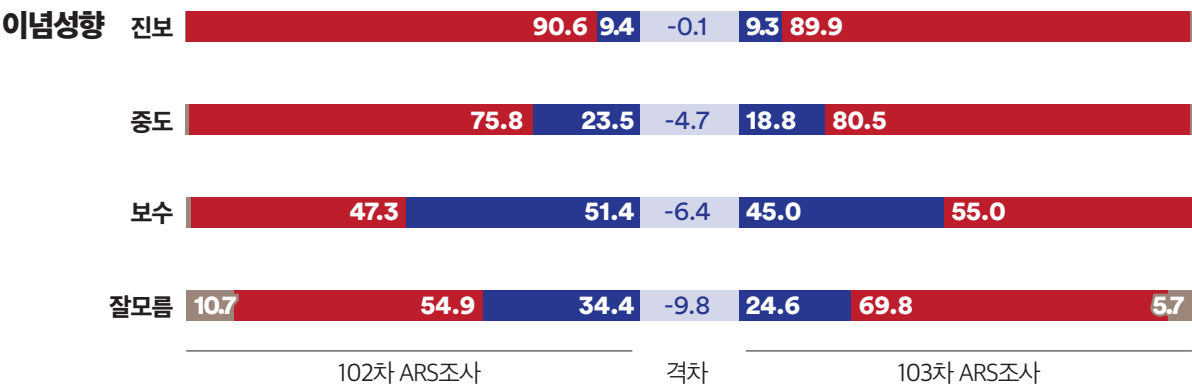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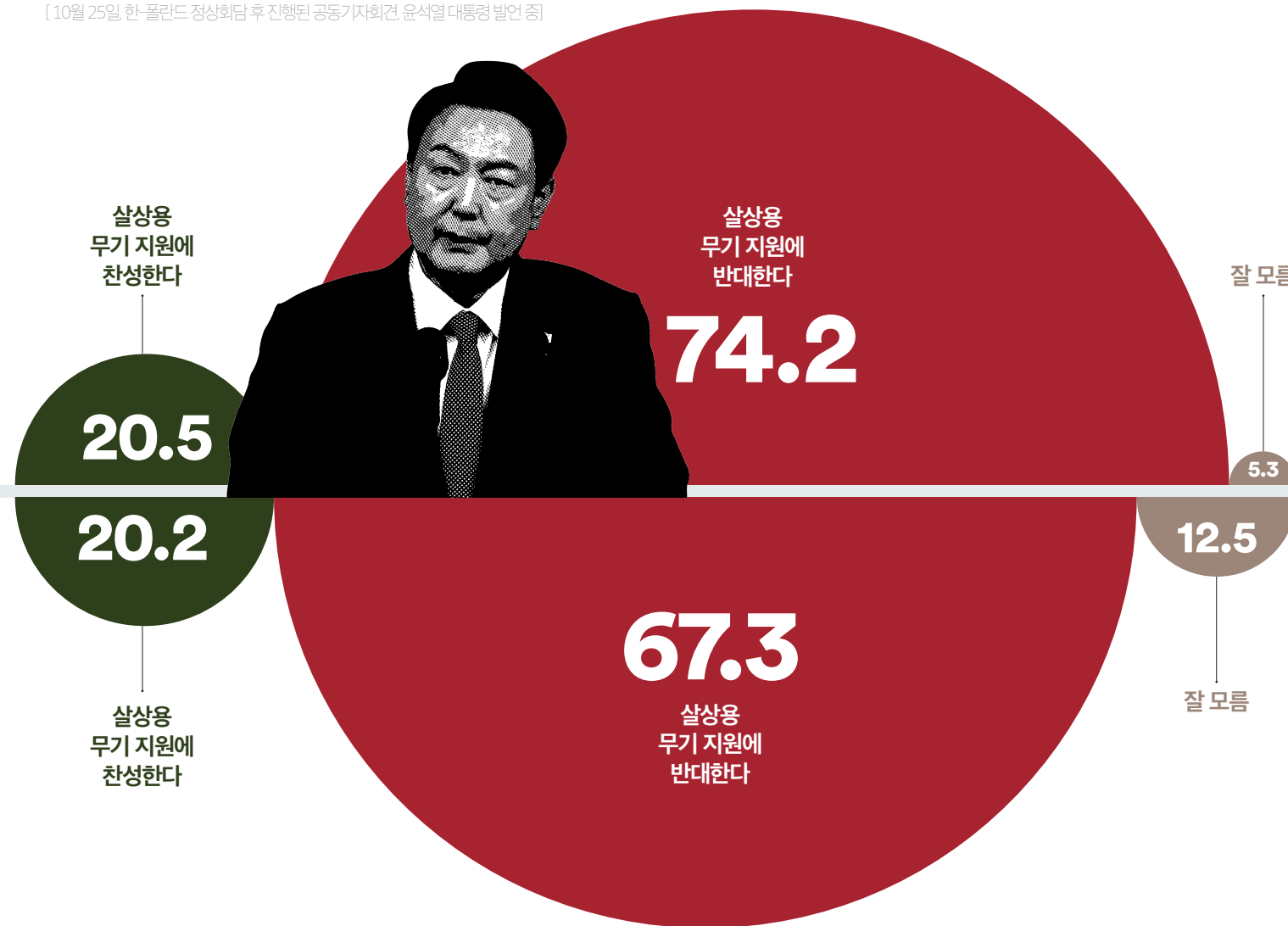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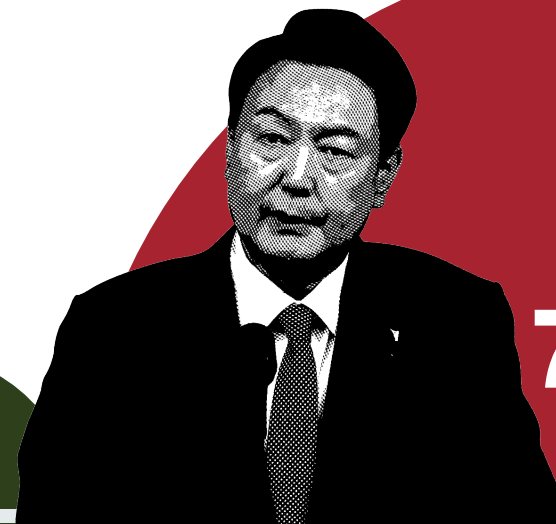
Q. 국정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발표한 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CATI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라·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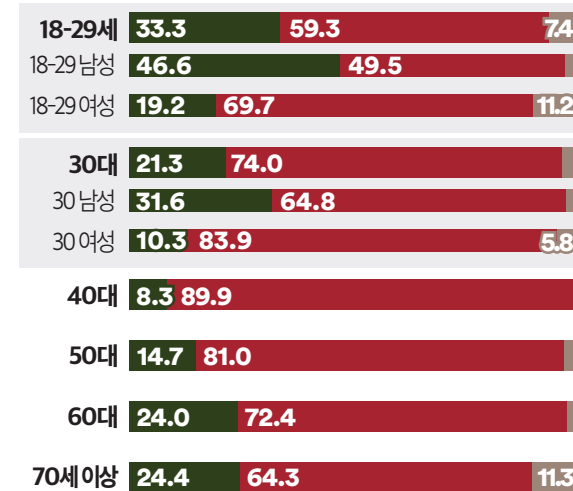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나갈 수 있습니다.”

[10월 25일 한-폴란드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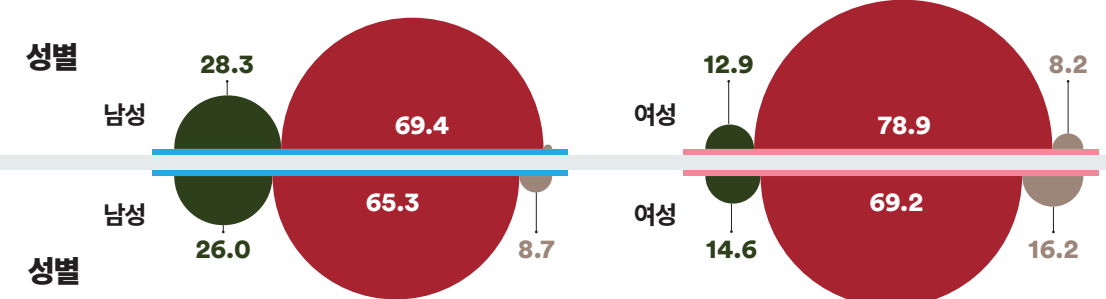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53.7%p, ARS 47.1%p)  
모든 권역, 연령, 성별에서 '반대'의견이 우세했으나 18-29세 남성의 경우 찬·반 의견이 팽팽하거나 '반대'가 소폭 앞서는 정도  
무당층과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모두 '무기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은 CATI조사에서는 '반대'의견이 오차범위 내 소폭 앞서고, ARS조사에서는 '찬성'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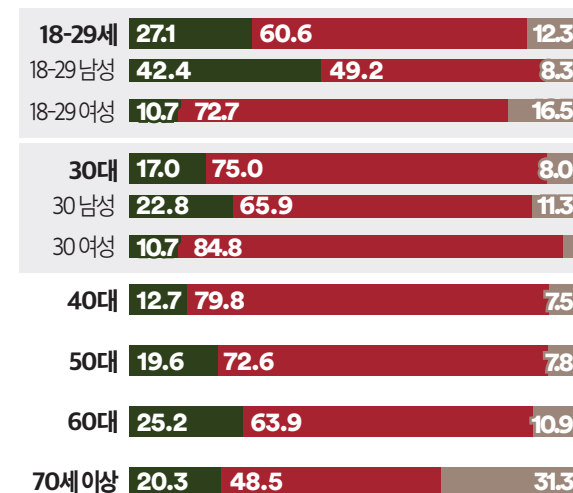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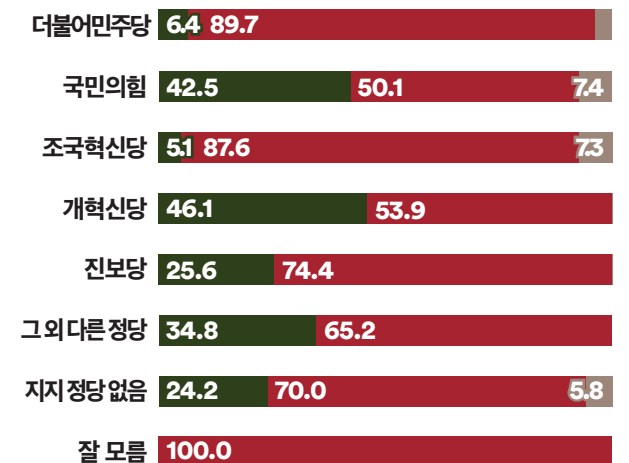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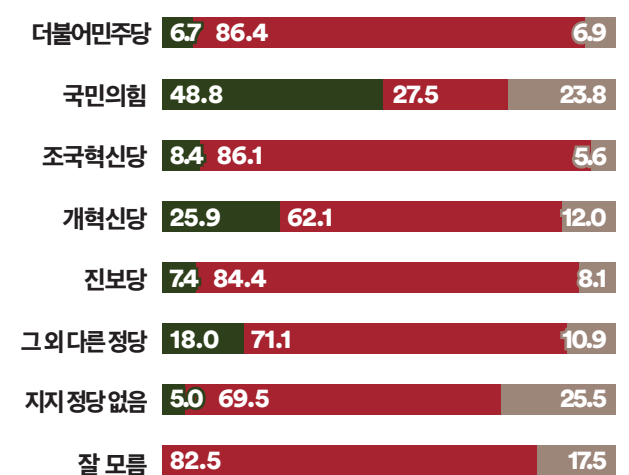
연령대



정당지지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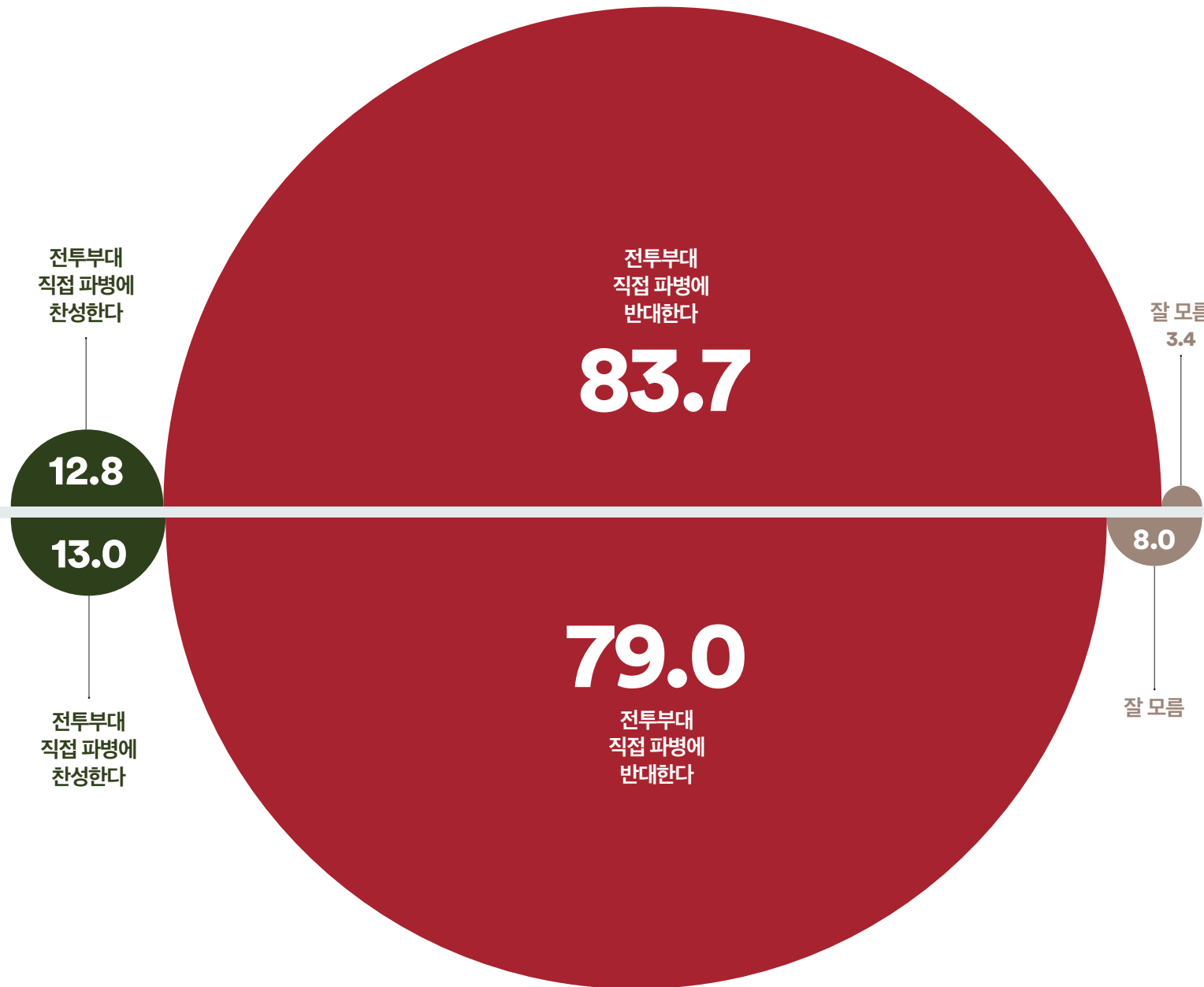
■ 살상용 무기 지원에 찬성한다 ■ 살상용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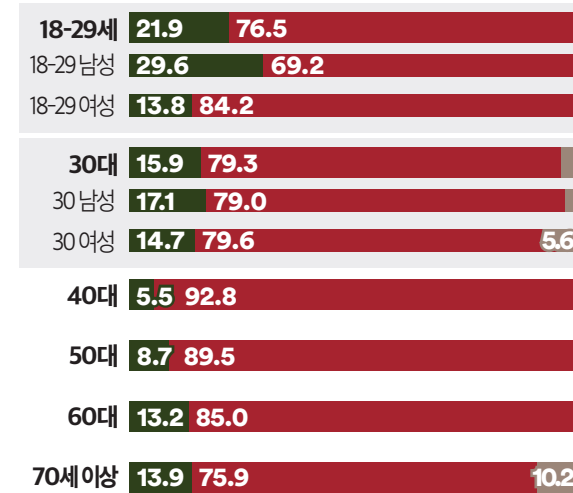
Q.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전투부대를 직접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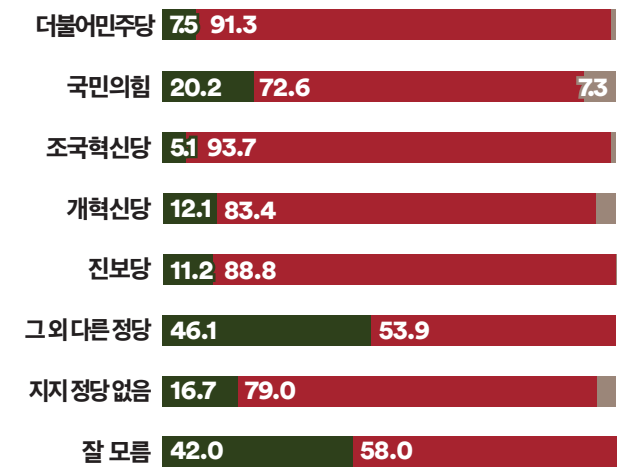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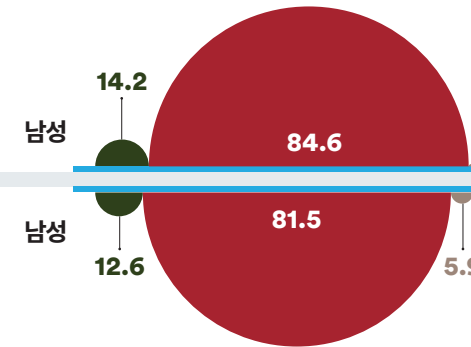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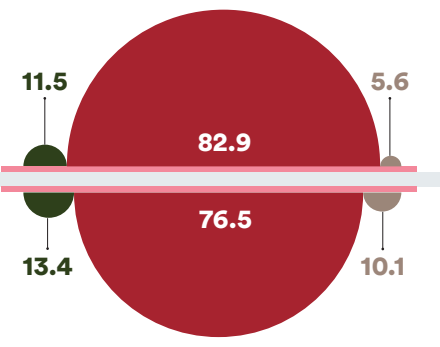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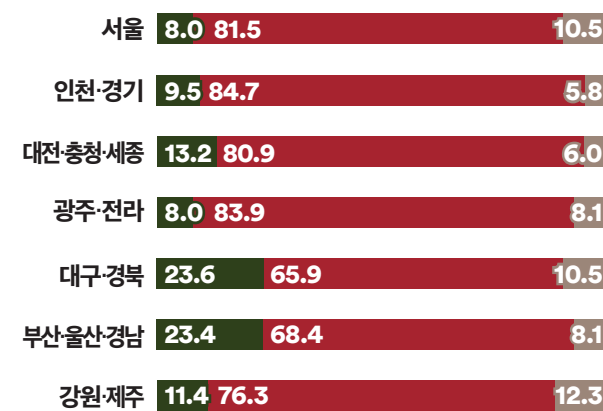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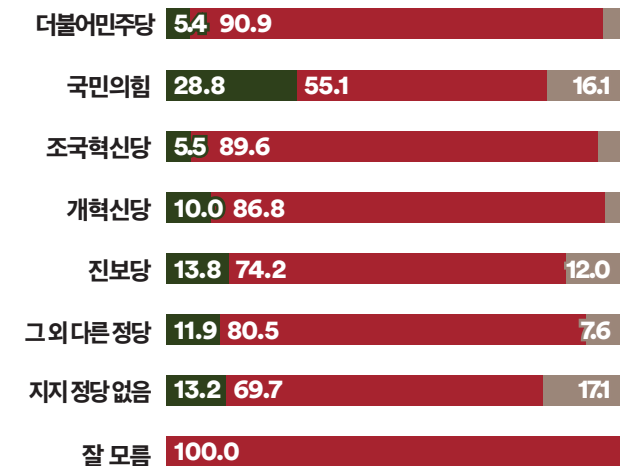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잘 모름

응답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전투부대 직접 파병에 반대'(응답 간 격차: CATI 70.9%p, ARS 66.0%p)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성별, 연령층에서 '반대'가 우세하지만 18-29세 남성의 경우 '파병 찬성'비율이 타 연령에 비해 다소 높음

두 조사의 모든 이념성향층(무당층 포함)에서도 '전투부대 직접 파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전투부대 직접 파병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

앞서 질문한 '살상용 무기 지원'에 찬성한 응답자도 '직접 파병에는 반대' 의견이 우세

‘영적 대화’가 국정에 영향을 미쳤을까

Q. ‘명태군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 씨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와 명태군 씨가 나눈 ‘영적인 대화’가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변경 등 국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해외 방문할 때 ‘뭘자리가 좀 안 좋다, 비행기 사고가 날 거다’ 해서 일정을 변경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일정을 바꿨다는 말씀이시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조문 생략했던 거, 앙코르와트 가지 않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되는 것입니까?”

“관련됩니다.”

“저도 명태군대표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남들은 천공스님때문일거라고 하는데 명태군씨가 맞습니까?”

[10월 21일 법사위 국정감사/ 강혜경 씨와 박군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답 중]

‘영적 대화’가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일 것이다

57.1

‘영적 대화’가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26.9

잘 모름  
16.0

ARS

62.5

‘영적 대화’가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일 것이다

24.5

‘영적 대화’가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13.0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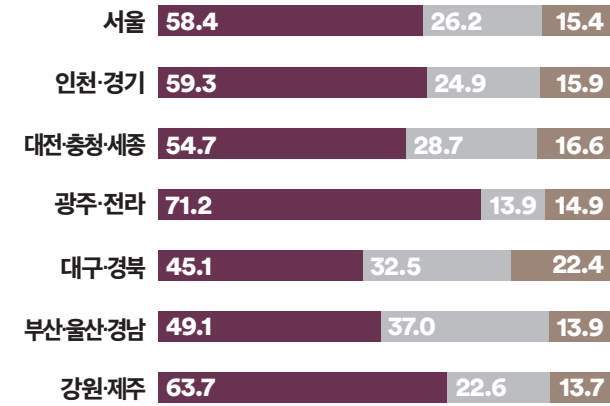
응답자 5명 중 3명 정도는 ‘영적 대화가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30.2%p, ARS 38.0%p)

CATI조사의 TK, PK와 ARS의 TK에서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이 앞서고, 나머지 권역에서는 ‘사실일 것’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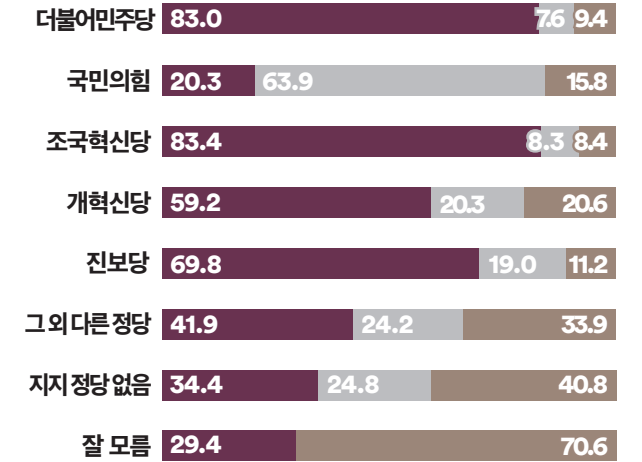
두 조사의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사실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응답간 격차: CATI 43.6%p, ARS 55.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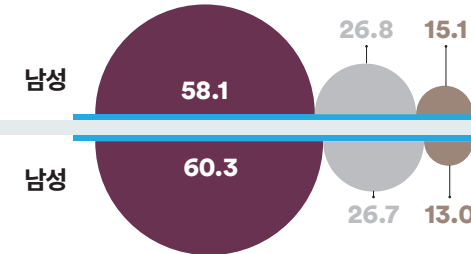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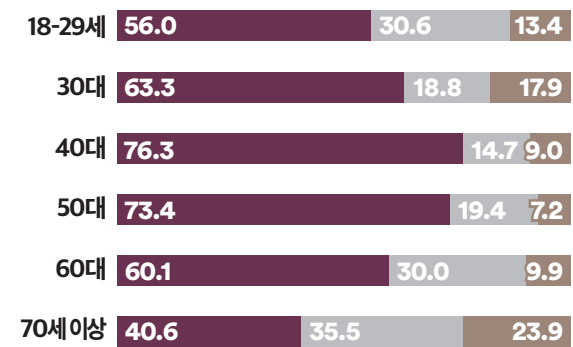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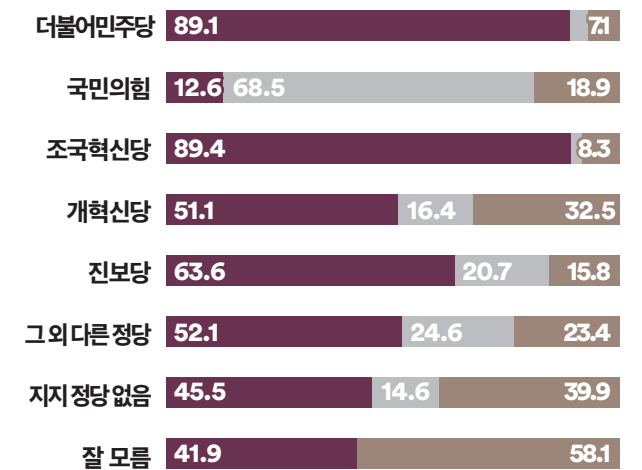
성별



연령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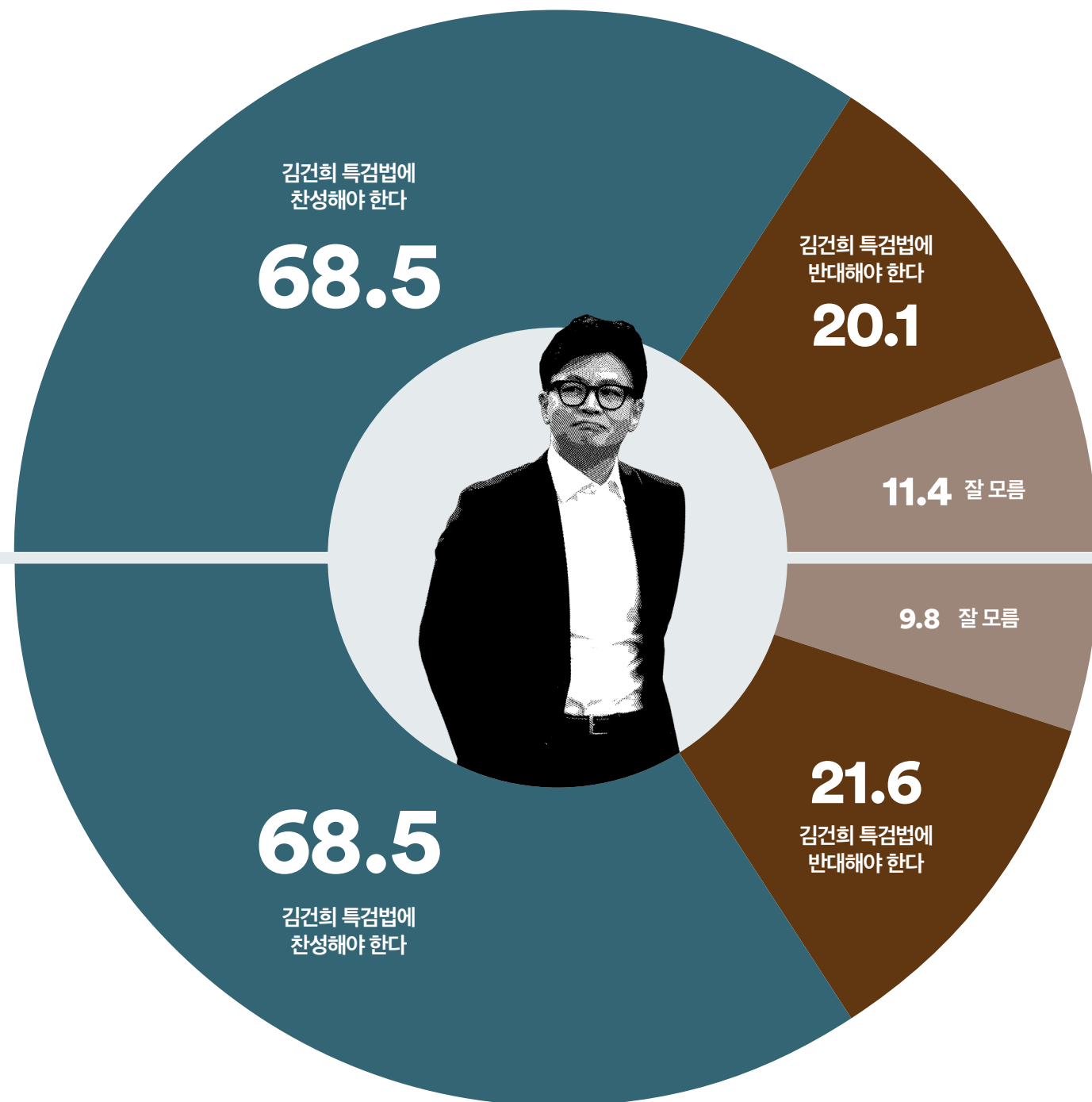
■ 사실일 것이다 ■ 사실이 아닐 것이다 ■ 잘 모름



Q.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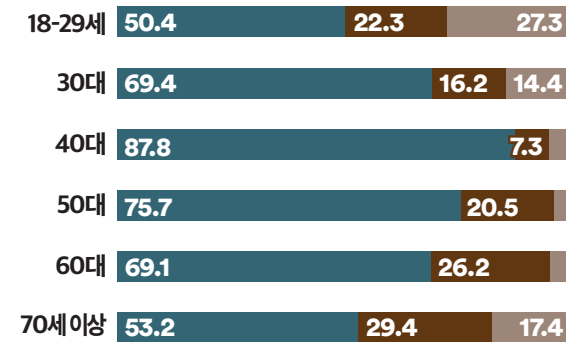


10명 중 7명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48.4%p, ARS 46.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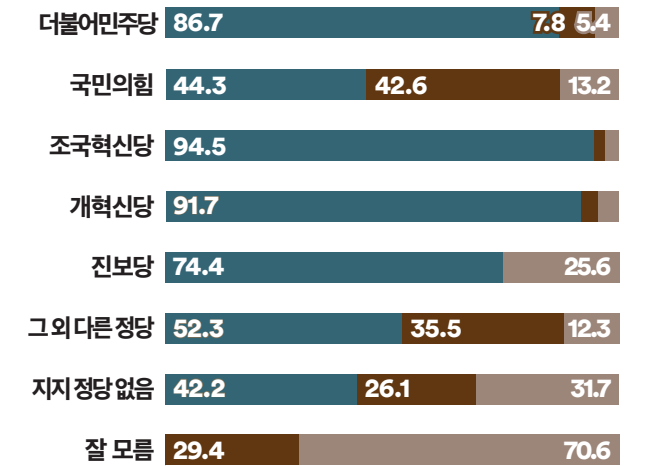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연령에서 '찬성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ARS 조사에서는 '반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격차 21.5%p), CATI조사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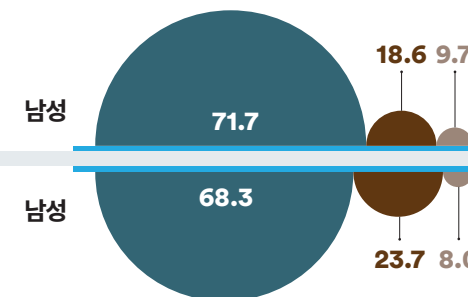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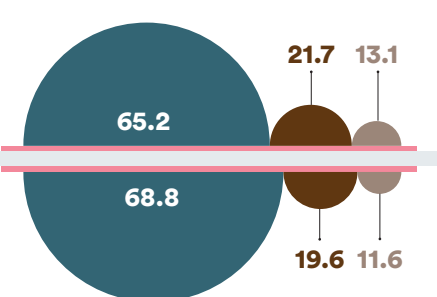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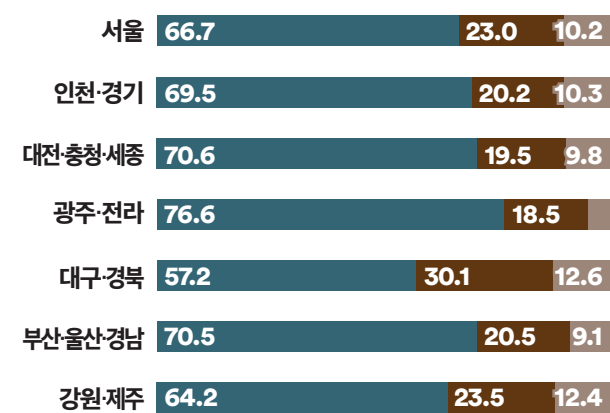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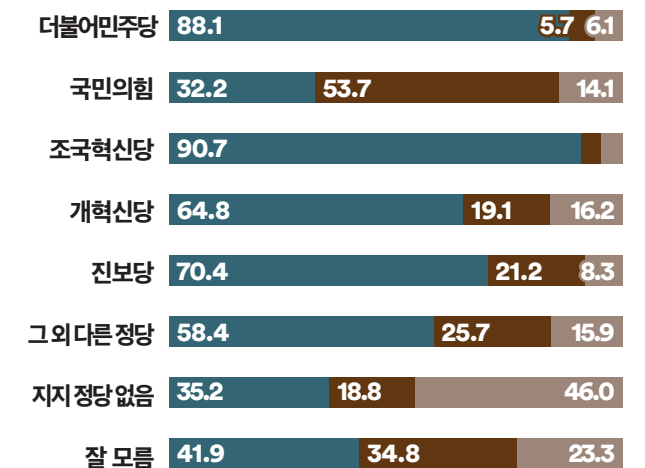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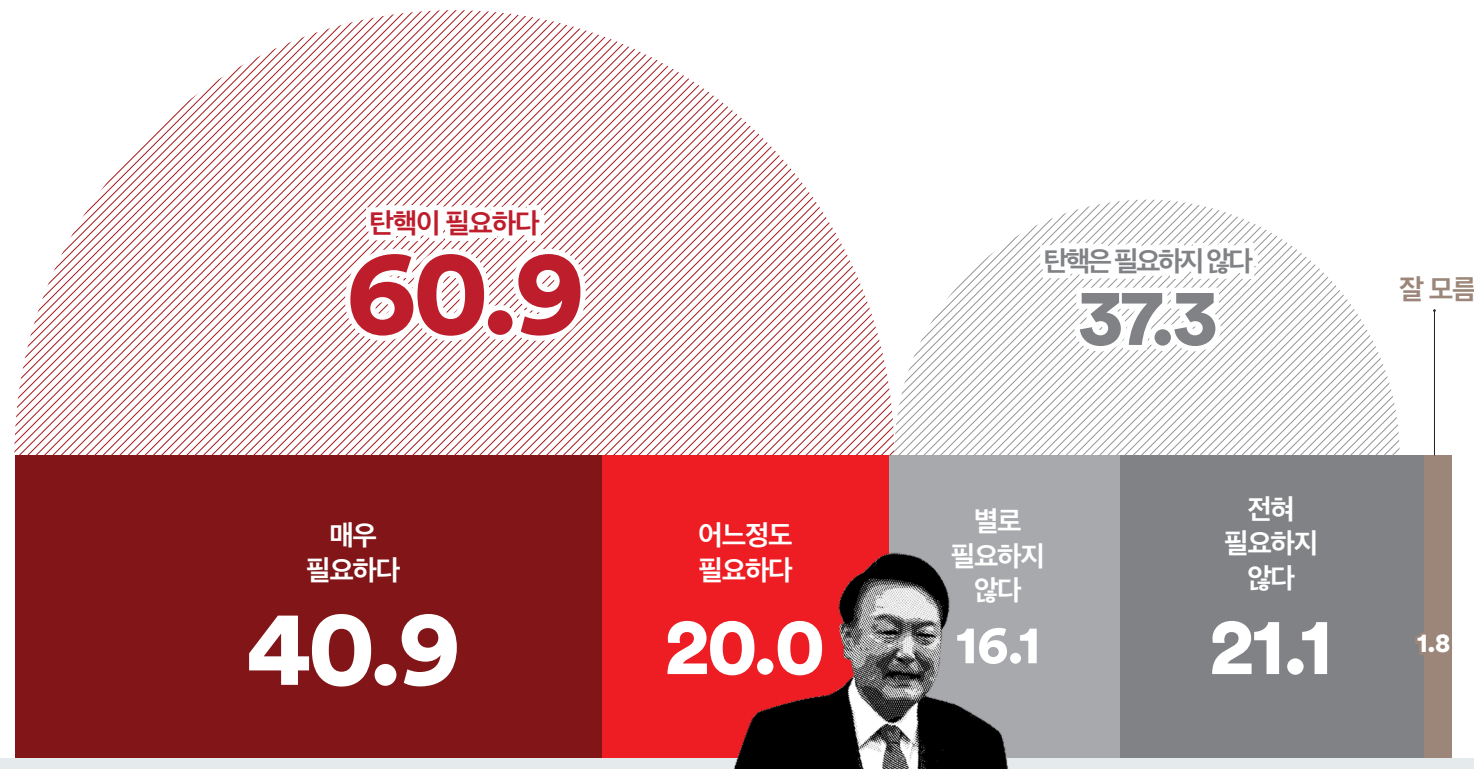


■ 찬성해야 한다 ■ 반대해야 한다 ■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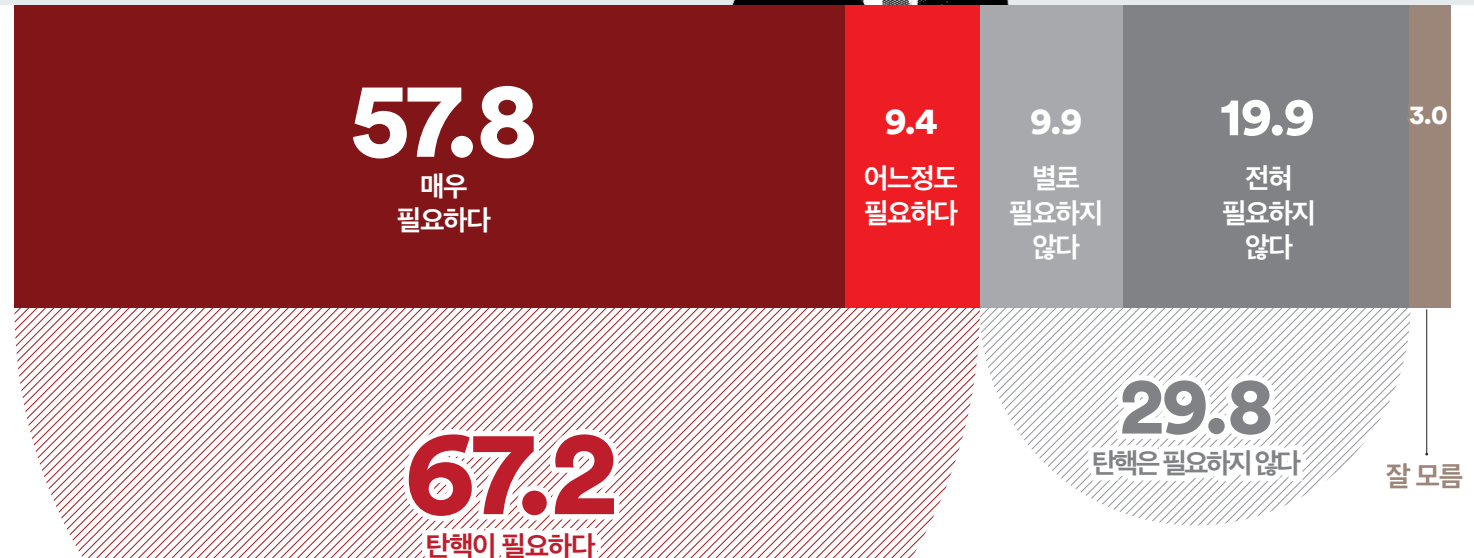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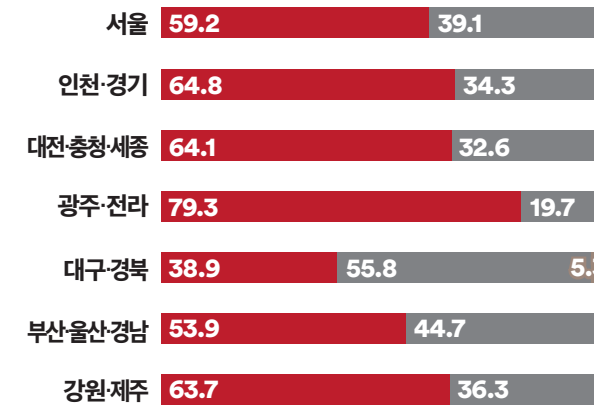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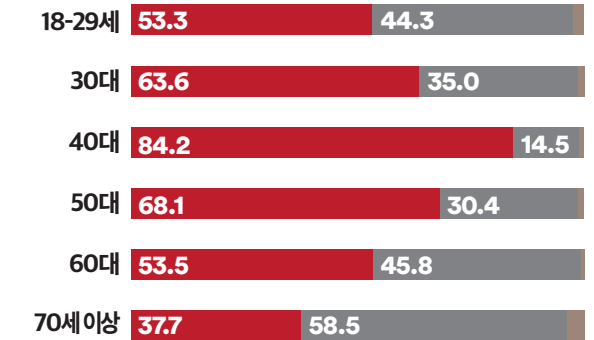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는 5명 중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23.6%p, ARS 37.4%p)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10명 중 8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CATI 82.3%, ARS 81.6%)  
CATI조사의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CATI조사의 불필요하다 우세, ARS조사에서는 비등하게 갈림  
두 조사의 보수층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격차: CATI 34.2%, ARS 12.1%)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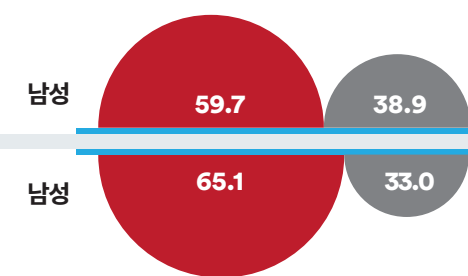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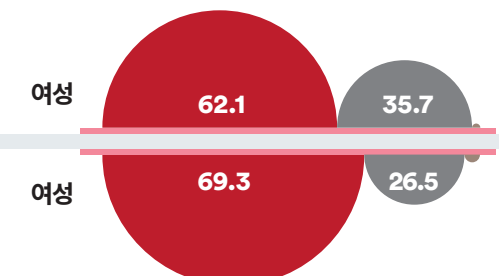
남성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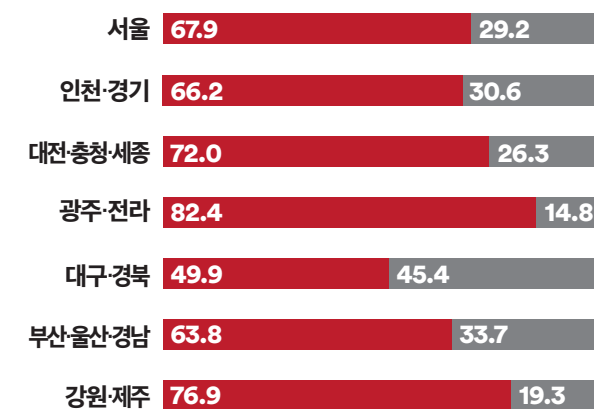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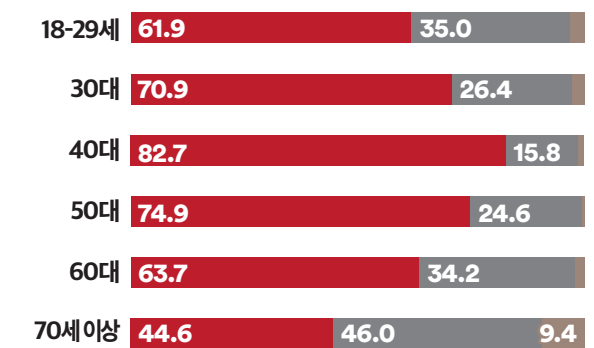
여성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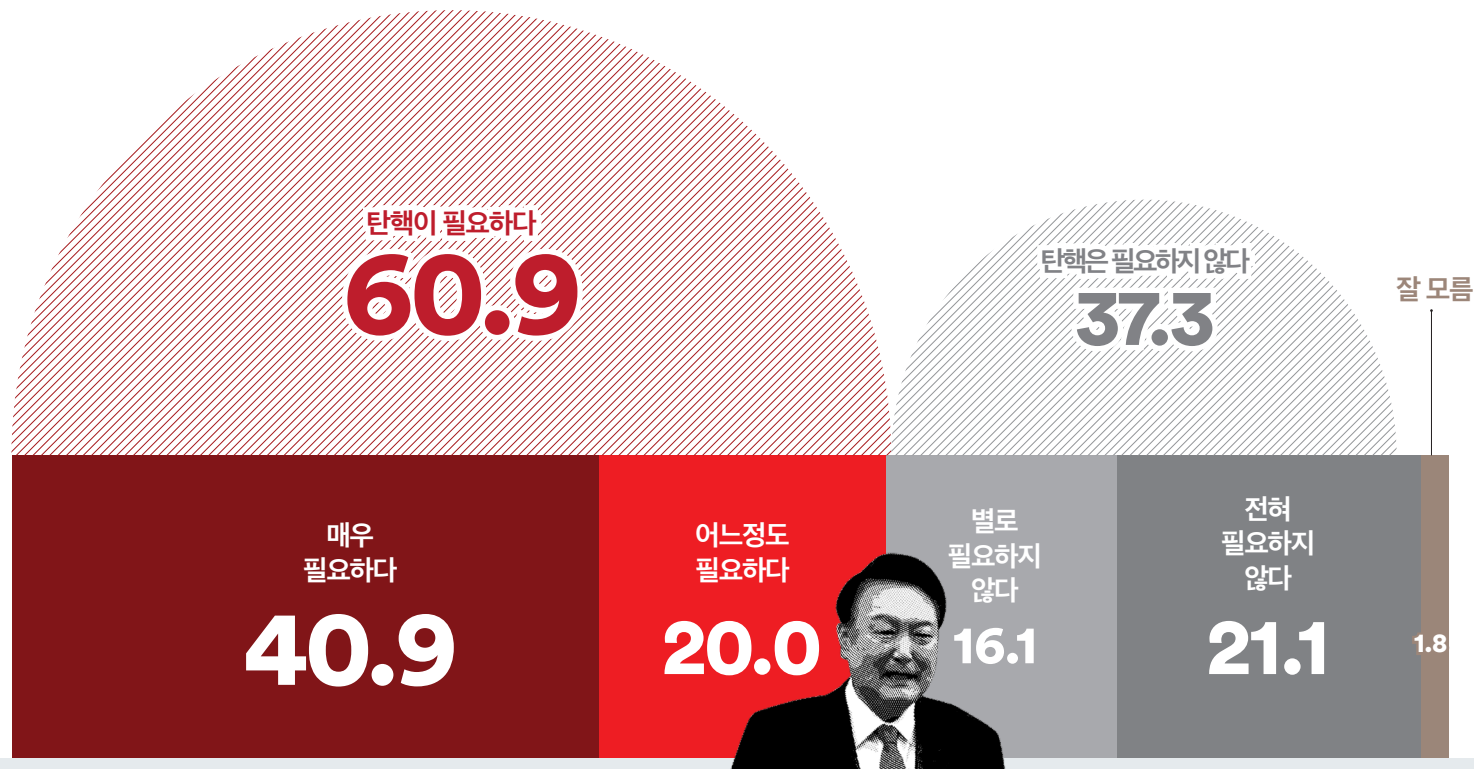


■ 탄핵이 필요하다 ■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 ■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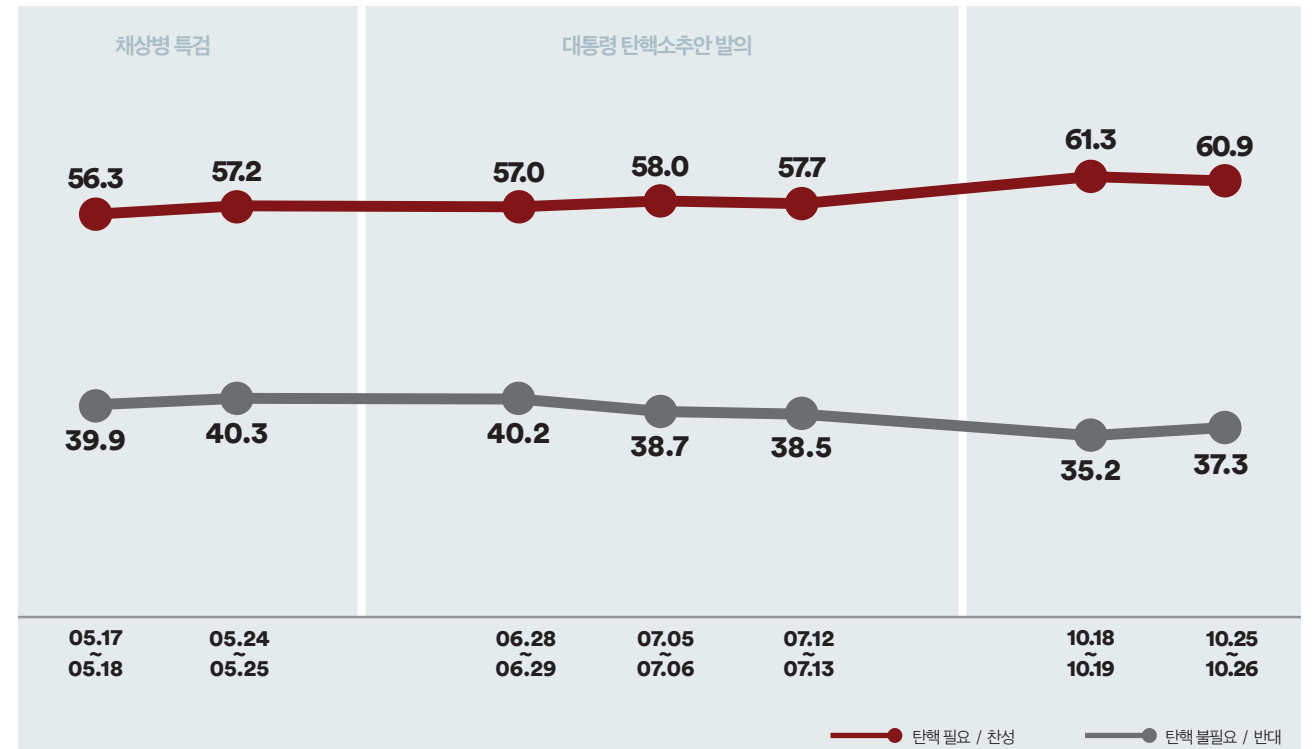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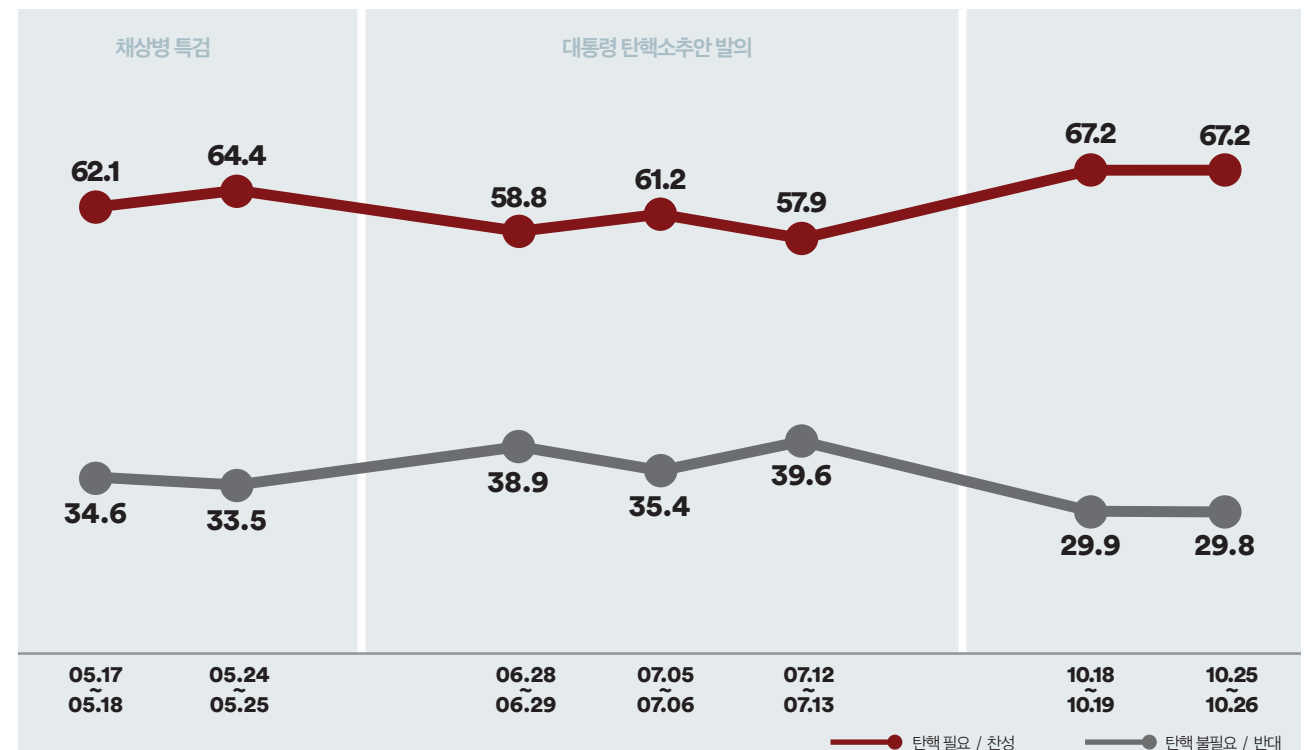
시기별 탄핵의견



ARS



시기별 탄핵의견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는 5명 중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23.6%p, ARS 37.4%p)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10명 중 8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CATI 82.3%, ARS 81.6%)  
CATI조사의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CATI조사의 불필요하다 우세, ARS조사에서는 비등하게 갈림  
두 조사의 보수층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격차: CATI 34.2%, ARS 12.1%)

WWW.  
FLOWERRESEARCH.  
COM

---

#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WR\_202410\_08

---